

# 지도사·영양사 없는 불안한 청소년수련원

## 장흥 남도국제교육원 부실 운영 심각...실제대표 무자격 전남도립대학 2010년 설립 위탁...학생들 안전사고 우려

광주·전남 청소년들의 야외 현장학습과 수련활동에 이용되는 장흥 '남도 국제교육원'(청소년 수련원)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립대학은 지난 2010년 3월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에 위치한 옛 장흥도립대학(폐교)에 전국 중·고교생들의 현장학습과 수련 활동장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도 국제교육원'

을 개설, 1년 후 (사)남도 청소년문화진흥원(대표 김화인) 측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도립대 측은 위탁운영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무자격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소년지도사(3명)와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는 기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도립대 측은 (사)남도 청소년문화

진흥원 실제 운영대표인 김모씨가 간호교사 자격증 소지자임에도 허위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목격한 채 수련원 대표로 선임했다. 사후 관리주체인 장흥군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5월 20일자로 김씨의 대표직을 직권취소했다. 그러자 (사)남도 청소년문화진흥원은 운영팀장인 김모씨를 장흥군에 대표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김화인씨가 여전히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자로 등록된 청소년지도사(2급인) 박모씨와 청소년지도사(3급인) 또다른 김모씨, 영양사인 황모씨 등

을 상주 근무시키지 않고 위조한 상황에서 불법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부터 우수업체로 등록된 (사)남도 청소년문화진흥원은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고 광주·전남 일선 학교들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학습과 수련 활동에 나선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은 수련원 측에 급식 및 안전사고에 대해 영양사와 청소년지도사 상주 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삼성전자 지원 'S-희망도서관' 장흥 관산 문화의집에 문 열어

삼성전자가 지원한 도서관이 장흥에 문을 열었다. 장흥군은 최근 관산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김성 장흥군수, 한국총괄 김재훈지사장, 디지털프라자 김영지 대표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S-희망도서관'현관식을 가졌다. 삼성전자가 한국총괄은 마루형 바다 교체와 서가 교체, 도서 지원 등 1500만원과 전자제품을 지원했다. 또 임직원들의 도서 모으기 행사로 도서 900여권도 함께 기증했다. 김성 군수는 "오프라 원프리가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으면서도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던 것처럼 장흥 청소년들도 책을 통해 많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가을 햇살 아래 꿀 빠는 나비 나비 한 마리가 30일 장진읍 강진군청 인근 꽃밭에서 꿀을 빨고 있다. 고 김남주 시인은 가을 햇살에 대해 '다름없어 꼬리 만큼' 자리한다고 묘사했다. <강진군 제공>

# 영암군-군의회 '건강문화 클러스터' 찬반 논쟁

영암군이 민선 6기 주요 과제로 추진중인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놓고 군과 군의회간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영암군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재원의 한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재원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친화적인 영구 임대주택과 종합 의료 복지시설 등이 함께 갖춰진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

한 국가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강문화 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또한 여기에 투자될 재원은 국비가 아닌 노인복지기금으로 새로운 저축상품을 만들어 충당하기 때문에 국가재정과는 연관이 없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영암군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조적 실버산업유치해 영암군을

복지의 유토피아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주체와 운영주체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별도 공익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리스크없이 대형 프로젝트를 지역산업으로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형 국가프로젝트인만큼 법이 통과된 뒤에 준비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관련 용역비의 계상이

## 郡 "실버산업 유치 영암발전 견인차" 의회 "예산만 날릴 우려...협조 못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바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산수유지킴 사업 등을 위한 용역비로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이라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근거로 추진중인 '건강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또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선 6기 주요사업이 시작부터 암초에 걸려 그 결과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강진중 축구 전남에는 적수 없네 교육감배 대회 압도적 실력차 중등부 우승

강진중학교 축구부(사진)가 축구 강호로 우뚝 섰다. 강진중 축구부는 최근 벌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2회 전라남도 교육감배 배 초·중·고 축구대회'에서 중등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황세한(2학년) 선수는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다. 전남 도내 6개 중등부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강진중은 예선에서 목포제일중학교를 6-0으로 대파하고, 4강전에서 광양중학교를 6-1로 물리치는 등

정의 골 결정력을 뽐냈다. 이어 강진중은 결승에서 해남중학교와 맞붙어 접전 끝에 5-1로 꺾고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강진중은 지난 8월 추계 축구연맹전 준우승에 이어 2014년 광주·전남 권역 주말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강진중학교 축구부는 1998년 창단 이후 16년째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축구 명문중학교로 명성을 올리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노란 사쓰 입은 사나이' 작곡가 손석우용 고향 장흥에 노래비 들어선다

"노오란 사쓰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쩔지 나는 좋아 어쩔지 맘에 들어..." 가요 '노란 사쓰 입은 사나이'(1961년 한명숙 노래) 등을 작사·작곡한 우리나라 트로트 가요계의 대부 손석우(94) 용의 노래비(조감도)가 장흥에 세워진다.



장흥문화원(원장 김희웅)은 11월 말 장흥읍 역삼산 자락에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내에 장흥 출신 작곡가 손석우용 노래비를 준공할 예정이다. 노래비는 높이 3.5m×폭 5.6m 규모로, 손 석우의 흉상과 대표작 '노란사쓰 입은 사나이' 노래말이 새겨진다. 장흥문화원은 20세기 한국 음악문화 발전 선구자로 헌신한 손 석우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취지로 군비 총 5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노래비 건립을 추진했다. 손석우 노래비 건립을 주도한 장흥문화원 측은 손씨가 장흥출신인 점을 감안

해 고향 관련 노력말과 약력 등을 노래비로 건립해 향수에 젖은 애호가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작곡가 손석우는 1960년대에 '노란 사쓰 입은 사나이' 등 트로트와 연속곡 주제곡인 '정실홍살', '눈이 내리네', '꿈속의 사랑' 등 2000여 편에 달하는 히트 가요를 남기며 한국 대중 가요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으며, 지난 2011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후배 가수들이 춘천 남이섬에서 손 석우의 70여년 음악인생을 기념하는 헌정음악회를 가졌다. 현재 손석우는 부인과 함께 경기도 용인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www.oceanocc.co.kr

www.oceanocc.co.kr

#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약: 061)536-1000

**선불 카드 할인표**

총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팀(전원) 40%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요금 안내**

구분	금액	비고	
인장료	주 중	60,000	18홀 기준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료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2